

빈곤 여성가장의 대처 전략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Coping Strategies of Poor Female Household Heads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옥 선 화
강사 성 미 애
경기도 안양시 청소년상담실
전임상담원 배 희 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이 재 림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 Ok, Sun Wha

Lecturer : Sung, Miei

Anyang Youth Counselling Center

Counsellor : Bae, Hee Boon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Doctoral Course : Lee, Jae R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논의 |
| II. 연구방법 및 제보자의 특징 | 참고문헌 |
| III. 빈곤 여성가장의 대처 전략:
어떻게 살아 나가는가? | <부록> 제보자가 빈곤 여성가장이
된 과정 |

<Abstract>

Female-headed household is one of the common family type in the changing Korean society. This study explored and described the coping strategies of poor female household heads who were in struggle with economic, physical, and emotional problems. The data was gathered by in-depth interviews with fifteen poor female heads of households. In the process of qualitative interview and analysis, the coping strategy was emerged as an important theme. The major strategies which the poor female heads had adopted were as follows.

First strategy was making up their minds to live as heads of households to keep their children in the fence of family. Second was accepting that any husbands would not be helpful in general. Third was developing independence, which meant providing their families on their own labor without expecting the support from social network or welfare system. Forth strategy was giving the present situation a positive definition: it gave them the emotional comfort.

주제어(Key Words): 빈곤 여성가장(poor female head of household), 대처 전략(coping strategy)

I. 서론

한국 가족은 변화하고 있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이혼이나 독신의 증가로 다양한 가족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며, 기혼여성의 취업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족과 관련된 고정관념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즉,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이 온전한 가족이라는 믿음이나 가족의 주된 생계 부양자는 남성이어야 한다는 믿음이 여전히 지배적인 상황이다. 이렇듯 변화하는 가족의 현실과 변화하지 않는 이념의 괴리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가족을 비규범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정상의 범위에서 소외시키게 된다. 이러한 가족의 구조와 가족내 역할에 대한 인식의 오류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리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의 하나가 여성가장 가족이다. 여성가장은 남성이 주된 부양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규범적이라는 고정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가족을 형성하고 있으며, 여성가장의 상당수가 사별이나 이혼, 별거의 결과로 여성가장이 되었으므로¹⁾ 핵가족에 대한 신화에도 배치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성가장이라는 용어를 통해서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적용되고 있는 여성가장에 대한 인식론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여성가장이라는 용어는 일반인의 사용과 이해에 무리가 없는 보편적인 개념이다. 반면에 여성가장과 대응되는 개념인 남성가장이라는 표현은 잘 사용되지 않는다. '가장=남성'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남성가장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다. 즉 가장을 정의함에 있어 남편의 지칭이라고 하거나 법률상 부(夫)의 지위라고 하는 것과 같이²⁾,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의 역할은 남성의 일이고 여성은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의 역할을 일차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규범적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가장이라는 개념 속에는 남성인 남편이 담당해야 할 가장의 역할을 여성, 즉 부인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비규범적이라거나 비정상적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³⁾이나 독신의 증가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여성이 가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정상성에서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 '가장=남성'이라는 이데올로기에서 형성된 남성중심 고용구조에 투입되는 여성가장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주부=여성'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여성가장은 부양자 역할과 주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과중한 역할부담을 지게 된다. 그래서 여성가장이라는 이미지는 이들이 사회적, 경

- 1)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여성가장 중 사별로 인한 여성가장이 50.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혼 여성가장 21.4%, 유배우 여성가장 16.6%, 이혼 여성가장 11.6% 순이었다. 1995년과 비교할 때, 사별 여성가장의 비율은 5.6% 감소했으며, 이혼 여성가장의 비율은 4.5% 증가했다(통계청, 2001).
- 2) 국어사전에서는 가장(家長)을 ① 집안의 어른 ② '남편'의 지칭이라고 하고있다(야후 국어사전). 또한 백과사전에서는 가장을 가족을 통솔하고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제시하고 민법이나 주민등록법 등의 현행 관계법률은 호주, 세대주, 친권자 또는 부(夫)의 지위로 간주한다고 설명하였다(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 3) 이 연구에서는 '편부모가족'이라는 용어가 함축한 부정적인 의미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에 따라, 편부모가족을 '한부모가족'으로, 편모가족은 '모자가족'으로, 편부가족은 '부자가족'으로, 편모는 '모자가족의 여성가장'이라고 사용하였다.

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여성가장이 처해 있는 맥락을 고려할 때, 여성가장은 가정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남편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가족을 부양하게 됨으로써 복합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가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여성가장은 경제적인 문제, 자녀양육 및 교육 문제, 직업의 불안정성, 그리고 우울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가장에게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상대적으로 저임금의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기혼 취업여성 이 가족을 부양할 경우, 절대적인 소득의 부족과 여기에서 파생되는 주거 문제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IMF 금융관리체제 이후의 경제 위기는 여성가장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켰을 것이다. 실제로 일반가구의 여성가장 비율은 18.5% 인데 비하여 생활보호가구 중 여성가장의 비율은 52.8%를 차지하고 있어서(보건복지부, 1999; 통계청, 2001), 많은 여성가장이 빈곤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성가장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주로 계층의 구분 없이 일반적인 모자가족의 여성가장을 연구대상으로 하거나, 여성가장만이 아닌 저소득층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여성가장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내용이나 이에 대한 대처방식은 계층별로 다를 수 있다. 특히 여성가장 중에서도 일차적인 생계 유지에 곤란을 겪고 있는 빈곤 여성가장은 빈곤 여성의 특징과 더불어 여성가장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을 것이며, 빈곤의 문제와 여성가장으로서의 어려움이 상호작용하여 빈곤 여성가장으로서의 특수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여성가장 중에서도 빈곤 상황에 처한 여성가장에 대한 이해와 지원책 마련을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그러나 빈곤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몇 편(김영희, 1996; 김정자, 1988; 박영란, 1998; 옥선화, 성미애, 허정원, 2001)에 지나지 않아서 현황과학과 정책입안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빈곤 여성가장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부분 실태조사(옥선화 외 2인, 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를 통하여 미시적인 현황과악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여성가장을 둘러싼 삶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또한 과정보다는 현재에 국한된 연구로 인해, 어떻게 여성가장이나 빈곤층이 되었으며 빈곤 여성가장으로서의 삶에 대처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많지 않다. 따라서 환경과 상호의존적인 개인으로서의 빈곤 여성가장이, 한국 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경험한 삶의 과정이나 삶에 대처하는 방식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빈곤 여성가장이라는 지위는 빈곤 여성가장 개인의 선택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그 상황에 처하게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어쩔 수 없는 현실과 미래의 삶에 대처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처 전략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든 삶을 재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빈곤 여성가장이 자신의 삶에 대처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질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이 연구는 심층면접과 질적 분석을 통하여 빈곤 여성가장이 가족을 부양하는 삶에 대처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대처 전략은 빈곤 여성가장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빈곤 여성가장의 특수성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빈곤 여성가장에 대한 복지정책이나 교육, 상담 등 실천적인 차원에 대한 함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구방법 및 제보자의 특징

1. 연구방법 및 절차

빈곤 여성가장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계량적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빈곤 여성가장의 삶을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빈곤 여성가장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가 채택한 외부자적 시각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선행연구의 이러한 제한점에 대해 몇몇 연구들(신수아, 옥선화, 2001; 이재림, 옥선화, 2001)에서는 질적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질적 연구는 세상의 복잡한 양상을 개방적인 상태에서 이해하고자 하며 당사자들의 주관적 세계 속에서 해석하는 반면, 양적연구는 제한된 맥락에서 연구자가 가설적으로 설정한 관계의 타당성을 입증해 보이는데 치중하기 때문이다(조용환, 1999: 20). 따라서 빈곤의 문제와 여성가장으로서의 어려움이라는 빈곤 여성가장의 복합적인 경험은 질적 연구를 통해서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질적 연구의 연구방법 중 하나인 심층 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제보자는 본인의 근로소득이 가족의 주된 수입원이며 남편의 소득이 없는 빈곤 여성으로서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여성가장이었다. 전형적 사례 선택⁴⁾을 하기 위하여 빈곤 여성가장에 대한 선행연구(옥선화 외 2인, 2001)를 토대로 결혼지위와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 모자 가정의 여성가장 중에서 제보자로 적합한 여성가장을 소개받았다. 면접이 진행되면서 제보자로부터 주변의 빈곤 여성가장을 소개받기도 하였다.

면접대상에 접근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개를 받은 빈곤 여성가장에게 전화를 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면접을 요청하였다. 전화를 통하여 면접을 승낙한 여성가장에게 이 면접은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대화이며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확신시킨 후, 면접시간과 장소를 약속하였다. 면접은 주로 제보자가 일을 하지 않는 일요일에 이루어졌다. 면접 장소는 참여관찰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보자의 집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협소한 집에 자녀나 남편이 함께 있어서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 어렵거나 연구자가 집에 찾아오는 것을 꺼리는 경우에는 제보자의 집이 아닌 기타 장소에서 면접하였다. 면접은 2001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1회의 면접을 통하여 제보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았다. 한 사례는 자료보완을 위해 추가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소요시간은 사례별로 2시간 30분에서 4시간이었다.

면접내용에는 제보자의 성장 과정, 빈곤 여성가장이 된 과정, 직업 생활, 가족 및 사회관계망과의 관계 등이 포함되었으며, 제보자들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에 대하여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이야기하였다. 면접내용은 제보자의 양해하에 소형 녹음기에 녹음하였고 전사본을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2. 제보자의 개인적 특징

이 연구에 참여한 빈곤여성가장은 총 15명으로, 제보자들의 개인적 특징은 <표 1>과 같다⁵⁾.

제보자들의 연령은 면접 당시 31세에서 49세였다. 하는 일은 식당 설거지 및 홀서빙, 공장 미싱사 및 미싱사 보조, 파출부, 보험설계사 등인데 고정적이기보다는 <표 1>에 열거한 직업들의 범위 내에서 유동적이었다. 월 평균 소득은 기계조립 부업을 하는 신희경씨가 20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이경순씨와 오미향씨는 1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나 남편의 병원비로 지출이 많기 때문에 빈곤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제보자들은 현재 이혼을 한 경우가 5명, 별거 중인 경우가 5명, 남편과 동거하는 경우가 3명, 그리고 사별한 경우가 2명이었다. 제보자들이 명시적인 여

- 4) 질적 연구는 모집단을 소규모로 설정하고 그 모집단 내의 모든 사례를 총체적으로 연구하거나, 양적연구의 '확률적 표집'과 성격이 다른 '준거적 선택'을 통해 연구 사례를 선정한다. 피르츠와 르콩트(Goetz & LeCompte, 1984)는 질적 연구의 목적과 현장의 특성에 따라서 열 가지 준거적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그 중 하나가 모집단 특유의 속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례를 선택하는 '전형적 사례 선택'이다(조용환, 1999: 27-28).
- 5) 본문 중의 제보자 인명은 제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제보자가 빈곤 여성가장이 된 과정은 <부록>에 자세히 제시하였다. <표 1>과 <부록>의 인명은 면접을 실시한 순서에 따른 것이다.

〈표 1〉 제보자의 개인적 특징

이름	결혼지위(남편의 특징)	연령(세)	학력	현재 하는 일	월수입(만원)	자녀
김보선	이혼	45	고졸	식당일	45	남(고2) 여(중3) 남(초4)
박경숙	별거	31	고 중퇴	식당일	70	여(초3) 여(미취학)
한혜숙	별거	45	고졸	파출부	50	남(중3) 남(중1) 남(초5)
정영숙	별거	44	고졸	미싱사 보조	60	여(고3) 여(중2) 남(중1)
허혜순	이혼	44	중졸	미싱사	65	여(고2) 여(중1)
최숙구	이혼	43	초졸	미싱사 보조	80	여(고3) 여(고1)
박명자	별거	45	대졸	사무 보조	80	남(고2) 여(중2)
이경순	유배우(간경화)	44	중졸	보험설계사	100	여(재수) 여(재수)
오미향	유배우(알콜중독)	49	고졸	파출부	100	여(중1) 남(초5)
나영심	유배우(장애)	47	중졸	미싱사	60	남(재수)
강선숙	별거	37	고졸	사무 보조	60	남(초4) 남(미취학)
정영선	별거 후 사별	42	초졸	우유배달원	73	남(고3) 여(중3)
신희경	사별	49	고졸	기계조립	20	남(중1) 남(초4)
고애석	이혼	45	고졸	식당일	80	남(대학휴학) 여(중2)
이수경	이혼	45	대졸	사무 보조	80	여(중1)

성가장이 된 계기는 결혼지위의 변화나 남편의 가출, 질병, 사고 등의 사건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대부분의 제보자가 그 이전부터 여성가장과 마찬가지로 생활을 하였다고 했다. 제보자들의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또는 퇴직이나 사업실패 이후부터 부양자 역할을 등한시켰는데, 정육점을 운영하다가 사망한 신희경씨의 남편만이 예외였다. 이혼이나 별거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원인도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 이었고, 현재 남편과 동거중인 제보자의 경우에도 남편이 병을 얻거나 사고를 당하기 이전부터 소득이 일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빈곤의 문제는 여성가장이 된 경위와 관계없이 모든 제보자에게 어려운 문제였다. 특히 주거문제는 대부분 월세로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었고, 의식주나 교육비 등 최소한의 지출도 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또한 많은 제보자들이 남편의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빚을 지고 살아가거나 신용거래 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한편, 제보자들 중 30대 초반의 박경숙씨를 제외

한 모든 제보자가 디스크, 고혈압, 실명, 협심증, 골다공증, 만성피로 등 크고 작은 육체적 증상을 호소하였다. 이와 같은 건강 악화는 직업생활을 어렵게 하였고, 결국 빈곤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제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이에 따른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으나, 빈곤 상황에 직면하여 있기 때문에 생계 유지가 일차적으로 시급한 과제라고 하였다. 대부분의 제보자가 생애주기에서 중년기에 놓여 있었으나, 하루하루를 먹고사는 일로 바쁜 이들에게는 중년기 위기감보다는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나갈 것인가'가 보다 중요한 관심사였다. 친정의 도움으로 다른 제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보조제보자 이수경씨만이 중년기의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는데, 그녀는 이웃의 빈곤 여성가장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사는 게 절실하고 각박하면(외로움) 못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나는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거 몰랐는데 아이가 크면서 하나하나 엄마 품을 이렇게 벗어나는 시간이 많으니까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야. 인생에 중

년기를 맞아 들어서 나는 뭔가, 삶은 뭔가, 그런 외로움. 그러니까 모두가 느끼는 공통적인 외로움이 지. 근데 이 외로움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간 여유가 생기면 더 깊이 찾아드는 거 같애. 정말 사는 게 절실하고 각박하면 이것도 못 느낄 수 있지. 근데 내가 그랬잖아. 내 현 생활에서 100% 만족은 아니지만 그냥 내 형편에 만족하고 사니까 그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외로움도 느끼고 그런 거라고.(이수경)

III. 빈곤 여성가장의 대처 전략: 어떻게 살아 나가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은 기본적인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현실화시키기 힘든 절망으로 변질시키기 때문에, 빈곤에 처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겨 준다. 더욱이 빈곤 여성가장의 경우, 여성은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을 담당하는 존재라는 이데올로기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취업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겪는 위기는 더욱 클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도 나름대로 재해석하여 새롭게 삶의 양식을 재구성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비록 본인이 원하는 최선의 삶의 모습은 아니지만 차선책을 선택하는 전략을 사용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다. 만성적인 생활고와 육체적,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빈곤 여성가장 역시 반복되는 빈곤한 일상에서 벗어나기 보다 이미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에서, 대처는 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의 충격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시도로써 취하는 행동(Pearlin & Schooler, 1978)이다. 또한 대처 전략은 개인이 적응하기 때우 어렵거나 적응 능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되는 특정한 상황적 요구를 관리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적·인지적 시도(Thoits, 1995)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개념을 참조하여 이 연구에서는 대처를 빈곤 여성가장이 경제적,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비교적 상황을 낙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빈곤이라는 상황과 본인이 가장이라는 상황을 인정하고 삶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처 과정에서 상황을 재해석해 가는 수단을 빈곤 여성가장의 대처 전략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대처 전략은 면접 과정에서 잘 나타났다. 처음 면접을 시작할 당시 연구의 초점은 빈곤 여성가장이 '어떻게 힘든가'에 있었다. 그러나 제보자들은 자신이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잘 해내고 있음'을 강조했고, '어떻게 잘 해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했다. 또한 면접을 하면서 연구자들은 이들이 어렵고 힘들게만 사는 사람들이라기보다 고된 인생의 역정을 이겨낸 '생존자들'과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내부자의 관점을 중시하고 새로운 변수에 열린 자세를 취하는 질적 연구의 연구 논리에 따라 제보자를 만나고 자료를 반복해서 읽는 과정에서, 연구의 초점이 변화해 나간 것이다. 결국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여, 어떻게 살아 나가는가?'가 면접과 분석 과정에서 빈곤 여성가장에게 중요한 주제로 떠올랐다.

빈곤 여성가장이 '어떻게 살아 나가는가?'라는 질문은 단순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이 질문은 빈곤 여성가장의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마음가짐 등 삶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며, 현재형이 아닌 '살아 나간다'는 현재진행형의 의미이다. 이에 기초하여 가장으로서 빈곤한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이 삶의 무게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 나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며, 그 전략의 기능과 한계도 규명해 나가고자한다.

1. 자녀를 위해 자신을 가장으로 인정하기

빈곤 여성가장이 자신을 가장으로 인정하는 대처 전략은 단순히 한 여성이 아닌 가장으로 자신의 가족을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전제된다. 즉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에게 지워진 부

양자의 역할, 때로는 모자가족이라는 덜 보편적인 형태일지라도 가족을 대표하는 가장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음으로써 자녀와 함께 사는 가족을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전제된 전략이다. 실제로 제보자들은 자녀를 위해 자신을 가장으로 인정하는 전략을 일차적이며 근본적인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빈곤 여성가장은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출의 유혹을 자주 받는데, 남편이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제보자들은 자녀를 버리고 혼자 살기 위해 가출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이며, 자녀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가장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식을 보였다. 그리고 이것이 어머니의 책임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제보자들은 한 개인이기 이전에 어머니였는데, 이는 이혼 여성의 대처 전략을 모성 정체성으로 설명한 노영주(2001)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가출했던 이경순씨가 다시 집에 들어와 여성가장으로 살기로 결심한 이유도 아이들에게 엄마가 곁에 있어서 가족을 유지해야한다는 생각 때문이었고, 이혼과 가출의 충동을 느낀 강선숙씨가 집을 나서지 못한 것도 아이들 때문이었다.

꽃동네를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보잘 것 없는 곳에서 자신을 완전히 바쳐서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내 가족을 버리고 다른데 가서 봉사하고 산다고 그랬었는데, 내가 내 가족을 버렸을 때 바로 내 가족들이 꽃동네 가족들의 모습이겠구나. 그걸 크게 깨우치면서 '그래, 나 하나만 희생하면 우리 가족이 다 편안할 수 있겠구나. 내가 어금니를 깨물어가며 희생하며 살아야겠구나.' 그 때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가 정말 우리 아이들 만큼은... 하나는 그렇게 됐으니까 둘 만큼은 정말 내가 사생아(고아)를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내가 모든 고통이, 고충이 닦쳐도 정말 이 아이들만큼은 내가 책임져야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면서 제가 마음을 굳혔어요. 학원을 못 보내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아니야 학원은 못 보내도 엄마가 가출해서 없는 것보다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내가 마음을 돌렸어요. (이경순)

솔직히 마, 어려울 때는, 애들 놔 두고 나가고 싶

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친정에서도, 막 애가 막 그게 너무 막 고달파서 막 그리 있으니까, 엄마는 막 속상하니까, 시집에 애 놔 두고 오라고 그렇게 하시죠. 하는데, 근데 애 만큼은 제가 못 놔 두겠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헤어질 생각 한 게 한 두 번이 아니죠. 이제... 한 두 번도 아닌데... 신랑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돼 봤을 때는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애 생각하면은 그게 안 되고. (강선숙)

그런데, 이러한 모성 전략의 채택은 일차적으로 빈곤 여성가장 본인의 선택이었지만 여성가장을 둘러싼 환경, 즉 좁게는 친척에서부터 넓게는 모성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빈곤 여성가장으로 하여금 어머니라는 이유로 여성가장으로 살도록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강선숙씨의 경우에는 남편이 부도를 내고 도망을 다니자 취업을 위해 시가에 자녀양육을 요청했으나, 시가에서는 강선숙씨가 자녀를 버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부탁을 거절했다고 한다.

시집에서 왜 애를 안 봐 줬느냐면, 제가 애를 좀 봐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남편의 사업부도) 터지고 나서, 제가 빚도 좀 갚고 제가 좀 벌게 애 좀 봐 달라니까, 애는... 혹시나 젊은 여자가 애들 버리고 도망갈까봐, 그런 저거 때문에 안 된다 고 그러셨거든요? (강선숙)

그렇다면 자녀와 함께 살면서 가족을 유지한다는 전략은 빈곤 여성가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성년자인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의식주 및 교육을 위한 지출을 요구하며, 이는 빈곤 여성가장의 빈곤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빈곤 여성가장은 자녀와의 동거를 통해 정서적인 안정과 만족을 얻고 경제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는다. 별거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한 후 자녀들과 함께 살게 된 정영선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후 답답한 심정이 없어졌다고 하였고, 둘째 딸을 외가에 맡겼던 정영숙씨는 어려워도 지금은 아이들이 함께 있으니까 웃음이 나온다고 하였다.

애들 데려오고 나서부터 (마음이) 더 좋아진 거

같아요. 그 전에는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도 않고 막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약국에 가서 물어봤더니 무슨 심장병이라고 그랬거든요? (정영선)

그래도 지금은 어려워도 정우하고 아이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도 웃음이 나와요, 우리가. 나는 정우 없을 때는 너무 너무 많이 울었어요. 백이면 백대로 울었어요. 그래 마, 이 시간에는 우리 정우는 뭐 할까. 애들이 저그 우리 시누이한테 밥은 얻어먹고 있지만, 맛있는 것 좀 나오면 우리 정우도 좀 해주고 싶은데, 좀 먹이고 싶은데... 지금은 그런 거 한 번이라도 해줄라 그러면... 돈가스 같은 거 뭐 해줄 수 있어요? 이런 거, 맨날 된장하고 김치하고 밥밖에 없는데, 이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네... 요즘은 그런 거 안 먹어도, 물론 밥하고 당근하고만 먹어도 우리 집이 행복하대요. (정영숙)

그러나,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늘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책임은 억압과 부담을 주기도 했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의 이면에는 피부양자인 자녀로 인해 빈곤 여성가장의 삶의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원망이 숨어 있기도 하다. 강선숙 씨는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엄마가 이렇게 힘든 거 아냐?'고 하며 악에 받혀서 때리게 된다고 하였고, 이수경씨 역시 교육적인 매로 시작을 하지만 감정이 개입되어 심하게 때릴 때가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자녀를 위해 여성가장으로 살기로 결심한 빈곤 여성가장들은 자녀가 뜻대로 자라주지 않거나 자신의 노력을 보상받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여성가장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에서 한계를 느끼고 괴리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연주도 가끔 가다가 교육적인 면으로도 때리지만 막 스트레스가 팍 올 때는 이게 모든 게 한꺼번에 막 온다구. 오면서 막 채한테 매질을 막 더 심하게 한 적도 있었어요. 제 4학년 때? 4학년 때, 5학년 때, 여기 이사와 갖고는 의도적으로 내가 좀 많이 강압적으로 많이 눌렀는데, 환경이 바뀌면서 지 또래 애들이 좀 안 좋은 애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휩쓸릴까봐 굉장히 내가 강압적으로 다스릴 때, 그 때에두 막 한 순간적으 내가 애 때문에 이룬다(고생한다)는 식도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 교육... 처음엔 교육적인 매로 시작을 했지만 감정의 개입이 막 심하게 들어갈 때가 있다고. 그게 나

만 그런 게 아니라 혼자 키우는 엄마들의 심리적인 현상이라. 영준이 엄마도 그러드라구. "언니 나두 그랬었어. 영준이 막 어렸을 때 안 됐다든 생각이 들면서두 교육적으로 처음엔 때리다가 막 내가 애 때문에 고생한다 뭐 한다 생각하면 매질이 더 잦아" 그러드라구. 근데 나두 그랬었거든. (이수경)

2. 남편이 안개 기둥임을 인정하기⁶⁾

빈곤 여성가장에게 있어 여성가장으로 산다는 것은 자녀와 동거하는 가족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와 함께, 남편이 아닌 부인이 돈을 버는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결심을 포함한다. 그러나 빈곤 여성가장은 여성가장으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아니다. 빈곤 여성가장이 사별, 별거를 경험하거나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남편을 만난 것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자발적으로 이혼을 선택한 여성가장들도 이혼을 선택한 것이지 여성가장이 되기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장이 되어버린 상황을 타개하기보다 인정하는 전략을 보였다.

먼저 남편이 아닌 부인이 돈을 벌게 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빈곤 여성가장의 남편들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남성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규범적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여성이 가장이 되는 이유는 대체로 선택이 아닌 상황의 힘이 크다. 일반적으로 빈곤 여성가장이 된 원인은 남성이 가장의 역할을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제보자의 남편들 중 정육점을 하다가 사망한 신회경씨의 남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양자 역할을 등한시했다고 한다. 빈곤 여성가장의 남편들은 대부분 과음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습성은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하는 직장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6) 빈곤 여성가장은 사회가 보편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남편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기대를 갖는 대신, 남편은 삶을 혼란스럽게 하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영화 제목인 '안개 기둥'이라는 표현을 선택하였다. 여기에서의 남편은 빈곤 여성가장의 전남편이나 현재의 남편이라기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남편'이라는 존재를 말한다.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에서 자신의 몸 하나만 챙기면서 가족들의 생활고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 일쑤였다. 이혼이나 별거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원인은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하였고, 현재 남편과 동거중인 제보자의 경우에도 남편은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기 이전부터 소득이 일정하지 않았다.

아유, 저, 그래서, 결정적인 동기가 그거예요.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일을 하면 한두 달 서너 달, 운전을 하더라도 가서 한 삼개월을 못 넘기죠. 승용차를 해도 그렇고, 자리 마련해서 넣어주면, 몇 달 있다 딱 나오고, 몇 달 있다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쌀이 없어 밥을 안 해줘도, 굶어도 일 안 할 사람이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정리하는 게 낫다 싶어서... (허혜순)

특히 이렇게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게 된 배경에는 음주의 영향이 많다. 과음은 정상적인 직업생활을 어렵게 하고, 심한 경우에는 간경화나 식도파열 등의 질병으로 이어진다. 또한 남편의 음주는 심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폭력과 욕설은 빈곤 여성가장에게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안겨 주게 된다. 제보자들의 남편은 대부분 술을 좋아했다고 하였는데, 심각한 폭력을 경험한 7명의 제보자는 남편이 흥기를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퍼붓던 장면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들은 모두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고,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구타를 하고 술버릇이 나쁘다라는 거, 술 먹으면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하고 간죽간죽거리게 하는 거, 잠을 안 재워주거든요, 구타를 하고, 되지도 않는 말 가지고 그냥 굶어요, 딱 앉혀놓고 술을 먹거든요, 앉혀놓고 술 먹고 자다가 꼬박 줄면은 이게 바로 날아오는 거예요, 재떨이도 뭐 컵이 뭐 바로 날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맞았던지 애 낳고 별로 이렇게 몸이 온전치도 않고 부서부서한 사람들...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인제 애기를 딱 낳아 가지고 왔는데 애기를 눕혀놓으면요, 그 애를 그렇게 보복을 하더라고요. 그 애한테, 나 미운 그걸 애

한테다 보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 이런 거구 모 붙잡힌 대로 베개고 뭐고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 애기를 내 뒤에 감춰놓고 키웠어요. 애기를, 눕힌 애기를, 눕혀놓고 이래 놓고, 항상 이래 놓고 오줌도 못 누러갔어요, 술 먹을 때는, 자기가 오줌 누러 가면 나도 그 때 가서 오줌 누고, 또 그 와중에 저 뭐야, 기저귀도 빨아서 막 널어놓고, 이러면서 인제 애기를 키우는데 얼마나 저를 벽에도 머리를 부딪혔는지, 얼마나 부딪혔는지 머리에 혹이 이만큼 부어버렸어요. 혹이 이만큼 낫아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얼마나 부었던지 그때 그 후유증이 지금도 있어요. 머리가 막 전기가 와요. 머리가 어떤 때는 전기가 찌릿찌릿하면서 아! 할 정도로 오는 그 증세가 있어요. (오미향)

이와 같은 남편의 음주와 폭력, 욕설뿐만 아니라 의처증과 외도 등은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남편에 대한 미움을 가중시켰다. 그 결과 아버지 없는 가족에 대한 편견이나 불이익이 많은 사회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들은 입을 모아 '남편이 없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 남편과 동거하지 않는 제보자들은 한결같이 현재의 상태가 육체적, 정서적으로 편하다고 하였는데, 최숙구씨는 남편이 없는 여자에 대한 편견이나 무시하는 풍조가 있지만, 문제가 있는 남편과의 이혼은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을 비추었다.

(어머니가 먹여 살리는 거에 대해) 운명적이라고 생각하죠. 운명이죠. 같이 살았어도 그럴 꺼야. 바람을... 글썽... 표시 안 나게 바람을 쐬어도, 어차피 맨날 돈 타 썼을 텐데 뭐. 그 때 내가 너한테 돈 타 쓰는 것도 진짜 더럽고 치사하니까 나가라고 그 소리까지 했어. 돈도 떨어져야 달라고 그러면 주고 그랬었어요. 애들도, 애들이 아빠를 안 찾는 이유도 하도 때려 가지고, 애들도 어렸을 때 막 집어 던지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없는 게 낫지. 나, 저... 심장병 있었어요. 그 때 들어오면은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집어 던지고... 남편 없으면 사람들이 깔보는 건 있지. 깔보고 돈 한 푼도 안 빌려주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에이, 없는 게 나야. 맨날 소리나 지르고... 그러니까 이혼하는 게 낫지. 이혼할라든 가능한한 빨리 하는 게 낫지.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혼할라든 빨리 하는 게 낫구. 괜히 들어올 꺼라구 자꾸 가망성 갖고 그러는 건 좀 어리석다고 생각해. 나도 그

렇게 생각 안 할라고 노력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최숙구)

지적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제보자가 남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남편은 없는 것이 낫다'는 의견에 대해서 3명의 제보자만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 이유는 이들이 여성가장이 된 배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부부 일방 또는 양방의 자발적인 별거나 이혼을 경험한 다른 제보자들과 달리 강선숙씨는 남편의 투옥으로 별거가 시작되었고, 박명자씨는 남편이 사업실패로 외국에 나가는 바람에 여성가장이 된 경우이다. 즉, 이들의 별거와 사별은 비자발적인 요인으로 인해 시작되었다는 점이 다른 제보자와 다르다. 사고로 갑자기 남편이 사망한 신희경씨의 경우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강선숙씨는 남편이 밋지만 언젠가는 가장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으며, 의지가 되는 상대라고 하였다. 박명자씨 역시 남편과 관계가 좋지 않았으나,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울타리이자 방패막이가 되는 남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제가 취업을 할려고 그래도 어디 찾아가면, 인사를 해야하고 이력서를 내야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남자를 거치지 않고는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남편이 있으면 도리어 못할 게 없을 거 같아요. 언제든지 내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뛰어올 수가 있잖아요. 남편이 있으면 그 울타리라는 게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병 들어 있어도 남편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그냥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잘 살건 못 살건 오손도손 서로 울타리가 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남편이 이틀에 한 번 집에 들어와도 그냥 남편이라는 울타리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빠가 있으면 아빠가 하는대로, 그 아빠가 맨날 술을 먹는 사람이던 집에 와서 어쨌던 사람인지간에 앞에 방패막이가 돼 주잖아요. 저는 지금은 없잖아요. 제가 해야 되잖아요. 애들을 지키면서... 그게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박명자)

남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제보자는 있었지만, 재혼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제보자는 한 명도 없었다. 남편이 아닌 남성과 교제를 하고 싶다는 제보자도

거의 없었다. 제보자들은 자녀가 있는 자신의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남자가 없을 것이며, 한 번 남자를 잘 못 만나면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생각했다. 그러나 재혼이나 이성교제를 할 의사가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남성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불신 때문이었다. 남자라면 지겹다는 한혜숙씨의 이야기는 빈곤 여성가장이 남성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주위 아줌마들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남자 없는 거 보다는 있는 게 나야... 그렇다고 내가 딱 남자 만나서 또 시집 갈 것도 아닌데... 딱 남자 있다고 또 시집간다는 그러고 싶은 맘도 없어요. "있는 남자도 처치 곤란이다" 난 맨날 18번이 거그러니까. 그래도 주위에서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려울 때는 남자가 있어야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맨날, 흠.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혼자 해결하지 될 해 주냐고. 내가 맨날 집세 때문에 고민하고, 무슨 일 있으면 고민하고, 그거 보잖아요. 주위에서.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런데 없는 게 편해요. 나는 남자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나는, 내가 남자 딱 생각하면, 나 돈만 딱 갖다 댔으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만 갖다 댔으면... 몰라요, 또 나이 들어서는 어쩔지 몰라도, 남자는, 하이고, 지겨운 거 같애. (한혜숙)

3.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홀로 서기

남편의 수입이 없는 빈곤 상황에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장 스스로 생활비를 조달해야 한다. 먹고 살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은행 대출, 주변사람의 지원, 물질적인 복지혜택 수급 등이다. 그러나 빈곤 여성가장이 궁극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금노동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빈곤 여성가장은 힘들어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홀로 서는 대처 전략을 채택하게 된다. 여기에서 홀로 서기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빈곤 여성가장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한국 사회에서 기혼여성의 취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와 직업이 매우 다양해졌다고 할 지라도 빈곤 여성가장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은 매우 좁다. 제보자들은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단순노동직 또는 단순기술직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공장이나 식당에서 일하거나 파출부, 보험설계사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제보자들 중에는 다양한 직업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의 직업은 다를지라도 이들이 겪었던 직업은 대체로 유사하였다. 최숙구씨의 직업 이전 경로는 빈곤 여성가장이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직업을 잘 보여준다.

그 전에는 저거까지 했었어요. 뭐지? 요새는 파출부라고 하지. 그 전에 식모살이 했었어요. 할머니 하나 모시고. 그 할머니 서대문구에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혈압이 높으니까 진찰해 주고 청진기 짚고 혈압 재 주고 죽도 썰 주고. 그 집은 부자라서... 그 다음에는 찡 공장. 찡이 뭐냐면은 앞에 모자 반달 모양. 그거 끼고... 그 다음엔 식당 다니고. 식당 다니다가 식당에 인제 손님이 안 와서. 워낙 외진 텐데 손님이 오겠어. 그래 갖구 보험회사 다니다가. 보험회사 몇 개월 다녔지. 그런데 보험회사 안 맞아. 이렇게 입 바른 소리를 많이 해 갖구. 사실 사기도 좀 치고 거짓말도 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공장에 시다로... (최숙구)

자녀가 어린 빈곤 여성가장의 직업 선택의 폭은 더 좁다.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어머니가 키워야 한다는 인식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빈곤 여성가장은 어린 자녀를 탁아 시설에 위탁하거나 친척이나 친구 등의 대리양육자를 찾게 된다. 그러나 탁아시설의 비용문제 및 운영시간의 제약, 그리고 무료 대리양육자의 부재로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그 결과 빈곤 여성가장은 직업과 자녀양육 중의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는데, 이 때 여성가장이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대상은 자녀이다. 즉 수입이 적더라도 자녀양육을 스스로 해결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그 결과 자녀가 어린 빈곤 여성가장의 직업선택의 폭은 더 좁아지고,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대부분의 제보자가 자녀가 어렸을 때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였는데, 한혜숙씨는

근처에 어린이집이 없어서 점심을 얻어먹을 수 있는 사무실에 자녀를 데리고 다녔다고 하였다. 오미향씨, 강선숙씨, 박경숙씨, 그리고 이수경씨는 일하는 중간에 자녀를 보러 갈 수 있는 집 근처의 일터를 선택했다고 한다. 아직 첫 자녀가 초등학생인 강선숙씨는 방학중에 자녀의 점심을 챙겨 줄 수가 없어서 힘들다고 하였다.

애가 있으니까 종일 할 수 있는 일을 못 가고요... 서빙 같은 거, 홀 더빙 서빙 같은 거, 그런 거... 인제 애만 어떻게 저거하게 봐 주는 데 뭐 확실한 저기 있으면, 그냥 늦게라도 일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꾸 인제 짧은 걸로 가게 되고, 그런 건 파닥파닥 하나까 자꾸 성질만 나빠지게 되고 그렇거든요. 애가 인제 학교 다닐 때는 괜찮은데, 학교 안 다니는 방학 때가 썰 고민이거든요? 밥을 못 차려 주니까, 차려 놓으면, 애가 먹으면 괜찮은데 안 먹고 나가버리고 노니까. (강선숙)

또한 빈곤 여성가장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선택의 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빈곤 여성가장의 직업이 일용직이거나 시간제 근무인 경우가 많고, 공장이나 식당에 고용된 경우라도 업체의 규모가 영세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혼여성의 경우, 미혼여성에 비하여 부인이자 어머니이기 때문에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과 여성을 연령으로 평가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고용주들이 기혼여성을 기피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일반적인 기혼여성과 달리 빈곤 여성가장은 자신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직업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은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이에 대해 정영숙씨는 공장에서 단 몇 초만 높아도 두렵고 불안하다고 이야기하였다. 특히 가족의 유지를 위해 여성가장으로 살기를 결심한 빈곤 여성가장에게 경제활동은 어머니 역할 수행을 위한 도구이므로, 직업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곧 가족을 유지하는 어머니 역할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허혜순씨는 공장이 문을 닫는 순간 '아이들을 굶겨 죽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고 한다.

IMF 막 터질 때 그 때, 그 때 좀 힘들었어요. 회사에서 월급 안 주고 다 감면시켜 버리고 막 일거리 없고 그러니까는. 월급 받을 때 됐는데 안 주고 한 열흘 더 지나니깐 문 딱 닫으면서 탄 데로 가래요. 그때는 진짜 아찔하더라구요. '어, 애네들 내가 맡아 갖고 이 한겨울에 굶어 죽이나보다' 그 생각 때문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셋이서 이 회사를 가기로 했는데 인제 그 실장 언니가 혜순이가 더 급하니 그러면 경원씨는 신랑이 버니 놔 두고 혜순이가 먼저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했는데 그 회사, 또 일이 없어서가지고 허구한날 놀잖아요. 그랬더니 월급 안 깎으면 일 안 시키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10만 원이라도 깎고 하자 그래 갖고 했는데 한 달에 반은 돌아버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일년을 그러구 나니까 더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허혜순)

이렇듯 제한된 직업선택의 폭과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빈곤 여성가장이 가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몸을 움직이는 것뿐이다. 이들에게 직업의 의미는 단순히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제보자들은 몸을 생각하지 않고 돈을 번다고 하였는데, 이경순씨는 새벽 두 세 시까지 부업을 하였고, 파출부를 하는 오미향씨는 하루에 세 집을 가기도 한다고 하였다. 디스크로 몸이 좋지 않은 한혜순씨는 돈이 웬수인지 아무리 아파도 일은 '해 질 때까지 계속한다'고 하였다.

막... 열흘동안 밥 안 먹고 힘들게 일하고 밤도 새고 막 그러니까요... 그러구... 몸이 지금 안 좋아요... 내가... 그래서, 일을 오래 못 해요. 허리도 안 좋고, 목 때문에... 목이, 오래 막 숙이고 부업하고 뭐하고 이래서 그런가봐. 이 목, 이게 디스크가 있어 갖고 이제 어깨가 아픈거야. 막... 그래서 일도 좀 심하게 하고 나면, 막 여기까지 저러... 그러니까 병원 가는데, 요즘은 비우기 싫어서 안 다니고 그냥... 그러니까 요즘도, 집에 있으면 그래요. 그 집에 한... 이틀을 가잖아요. 이틀 가고 삼일 가면은, 내가 막 죽겠는거야. 이거는 목이. 그래도 그게 여기서도 아침까지 끄꽁 죽네사네하고 가다가, 그 집 가면 또, 해져요... 또... 진짜, 돈이... 돈이 웬수야. (한혜순)

이렇게 여성가장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빈곤 여

성가장은 정신력이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변화한다. 대부분의 제보자들이 여성가장이 된 이후 자신이 크게 변화했다고 하였는데, 오미향씨는 '남들에게 손 안 벌리고, 내가 다 벌어서 해결을 하다니 여장부가 되었다'고 하였다. 정영선씨 역시 '배짱이 생겨서 두려운 것이 없다'고 하였으며, 이수경씨는 '계속 울다 보니 어느 날 울음의 끝이 있고 강해졌다'고 한다. 그런데, 제보자들은 위기의 순간에 여성이 강해지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라고 하였다. 남자는 사업실패 등을 경험하고 술에 의존하는 등 나약해지지만 여자는 더욱 강해진다는 것이다. 나영심씨의 남편은 사고 이후 술을 많이 마시고 눈물을 자주 흘린다고 하였고, 이경순씨는 힘들어질수록 좌절을 하는 남자와 달리 여자는 강인한 정신력이 나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여자가 강하다는 걸 느꼈어요. 여자는 내 생활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더 강인한 정신력이 나와요. 저는 어금니를 깨물고 어떻게든지 살아야겠다는 그런 강한 정신력이 나오는데 남자들은 좌절을 해버리고 술로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분들은 안 그런 분들도 많겠지만, 식구들 힘들게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리 못 배우고, 가진 게 없고 해도, 내가 부지런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엄마가 정말 여기에 갈 때는 다 해도 보험은 못 한다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보험을 해보니까 이제는 어디가도 뭐든지 내가 할 것 같아요. 이제는 못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고... 지금 그러니까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예요. 정신이 쓰러지면 그 때 이제 나는... 여기서 내가 힘을 놔 버리면 그냥 지금도... 지금도 마음을 놓아 버리면 입원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경순)

빈곤 여성가장이 어려운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변화한 배경에는 '나 아니면 도와 줄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가 미흡한 한국 사회에서는 친척 등 사회관계망의 지원이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하는데, 빈곤 여성가

장은 사회관계망의 지원 역시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도시 빈곤층에서는 친척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거의 없다고 밝힌 선행연구들(김주희, 1992; 조은, 조옥라, 1992)의 연구결과는, 이 연구의 제보자인 빈곤 여성가장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제보자 중 일부는 친구나 여동생, 이웃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지원의 내용은 주로 반찬 제공이나 말벗이 되어 주는 것 등일뿐 직접적으로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제보자들은 입을 모아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한다'고 하여 경제적인 독립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는데, 이들이 사회관계망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사회관계망 구성원 역시 경제적인 곤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박명자씨와 최숙구씨는 '서로 어려운 처지에 돈 얘기를 하면 사이만 나빠진다'고 하였고, 정영숙씨는 '친척들이 결혼식 같이 돈 드는 일에는 일부러 연락을 하지 않는데 그 점이 섭섭하다'고 하였다. 허혜순씨는 '연락을 하면 도와달라고 하나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남동생은 인제 다른 애들하고 연락이 되는데 저 하고만 안 해요. 저는 제가 혼자 살면서 없이 살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나보다 그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니까 연락을 안 하게 돼요. 인제 될 수 있으면 남자동생네 안 갈려고 그러죠. 예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가면 아무래도 지가 밥 해결해야되고 힘들을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하죠. (허혜순)

대부분의 빈곤 여성가장은 개인적 사회관계망으로부터 별다른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이나 모자과정 혜택 등 정부 복지사업의 수급대상자가 된다. 이 연구의 제보자 중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나영심씨를 제외한 모든 제보자가, 많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생계비에서부터 적게는 자녀의 학비 등을 지원 받고 있었다. 그런데 복지혜택 수급의 느낌에 대해 제보자들은 연구자들의 예상이나 일반인의 인식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한국 사회는 복지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이

는 빈곤 여성가장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수급자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복지혜택 수급에 대한 제보자들의 첫 반응은 대부분 '고맙다'는 것이었고, '행운이다'라고 하거나 더 나아가 '지금도 충분하다'고 한 제보자도 있었다. 김보선씨와 허혜순씨는 '아이들을 고등학교도 졸업 못 시킬 줄 알았는데, 애들 학교만 다니게 해 주는 것도 고맙다', '어떻게 먹고는 살겠는데 학비가 걱정이었다. 학비가 해결되니 너무 고맙다'고 하였다. 정영숙씨는 '생계비를 받기 전에는 높은 사람들을 욕했는데 생계비를 받고는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렸다'고 회상하였다.

(생계비를 받으니까) 엄마야, 내게도 이런 행운이 있는갑다. (웃으며) 행운이제.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진짜 나는 받기 전에는 높으신 분들... '왜 살아가면서 국회의원 할라 하는지를 내가 모르지. 당선만 되면 돈만 떼먹고 지가 부자 되려고, 저런 나쁜 놈들' 이랬는데... 내가 얼마나 욕했는데... 내가 나라에서 이거 받기 전에는 제발 전쟁이나 나쁜 것 있어서, 전쟁이 나쁜 이름 썩 다 지워 버리고 내고 없고 없이 그냥... 그런데 내가 생계비 딱 받고 보니까, 하... 나라가 그런 게 아니었구나.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돌려주는구나... 나 진짜 나는 불평 안 해. 옛날에 나는 진짜 이 나라 망해버리고, 내가 응? 어차피 내가 못 살아 죽는 건 똑 같은데 있는 놈 단추를 왜 내가 구하냐고 맨날 욕을 했거든. 근데 인자는 아휴, 어쨌던가 높으신 분들이 이래 한 쪽 눈을 돌려주시니 고맙다. 진짜 내 고마워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고마운 거야.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너무 고맙게 얘기해 내가. 지금은 내 너무 너무 내가 고맙게 여기고... 또 뭐 해도 걱정도 없고... 뭐 (웃으면서) 나라 또 빛이 많타카이 걱정돼 내가... 또 꿇길까 싶어서... 솔직히 그런 맘도 들어요. 빛이 많으면 아무래도 들어오는 게 좀 안 작겠느냐. (정영숙)

물론 빈곤 여성가장이 현재의 복지 수급에 대해 불만이거나 요구사항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제보자들은 주거비 대출이나 사교육비 보조, 수급 방식의 개선, 그리고 수급자 선정의 엄격성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도 아니고 나라 경제도 어렵다는데 복지 혜택을 받으니까

고맙다' 라는 것이 그에 앞서서 생각이었던 것이다. '가난 구제는 나랏님도 못 한다' 는 속담이 있는 한국 사회에서, 친밀한 사회관계망의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빈곤 여성가장들은 도와주는 사람도 없지만 기대하는 것도 많지 않다. 따라서 나와 내 가족은 내가 벌어서 살아 나가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며, 복지 제도는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제보자들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으며, 이는 빈곤층이 복지 혜택에 의존하여 살고 있다는 일반인들의 우려가 모든 빈곤층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4. 현재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정의하기

생활고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빈곤 여성가장은 현재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연구를 진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은 빈곤 여성가장에게 있어 중요한 심리적 대처 전략임을 알 수 있었다. 많은 제보자들이 긍정적인 생활자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입을 모아 '사람 욕심에는 한이 없다' 고 하면서 현재의 생활수준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제보자들은 만족이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만족을 하기까지는 '마음을 비우는 과정' 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이경순씨는 '마음을 비우니 편하다' 고 하면서 '내 수준에서 건강하게 사니 만족한다' 고 하였다. 한혜숙씨 역시 '만족이라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 이라고 하였고, 정영숙씨는 '살 집이 있으니 부러울 것이 없다' 고 하였다. 다음은 '돌아갈 집이 있고 건강하므로 행복하다' 는 김보선씨의 이야기이다.

지금 뭐, 경제적인 거 말고는 다른 거는 별로 불만이 없어요. 다 만족하고, 행복해요. 생활이. 그냥 일 갖다가 올 때, 밤에 늦게 올 때도 많거든요. 그 출고 막 그래요.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참 행복하다. 돌아갈 집이 있고, 따뜻한 집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면은 진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웃음) 가끔씩 가다가 인제 우울할 적도 있어요. 날

씨가 이렇게 흐리다던가 또 그러면은 우울할 적도 있고 그러는데, 얼른 생각을 바꿔요, 인제. 나는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건강하니까,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드러눕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내가 생각을 바꾸자,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 그러면 금방 또 괜찮아져요. (김보선)

마음을 비우고 현재에 만족하려고 노력한다고 쉽게 만족할 수 있는 것인가? 독립적인 생활자세를 가지고 여성가장으로 살아 나가는 빈곤 여성가장도 지칠 때가 있을 것이다. 이 때 빈곤 여성가장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라는 인식을 통해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정의하는 전략을 보였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비교를 통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제보자들은 대부분 빈곤층 밀집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웃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부자가족 등과 자신의 형편을 비교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노숙자나 장애인을 예로 들면서 '그래도 돈만 없는 우리가 낫다' 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한혜숙씨는 '높은 사람 쳐다보고 살지 않고 밑에 있는 사람 보고 산다' 고 하였고, 강선숙씨는 독거노인에 비해 자신은 '가족이 있으니 낫다' 고 생각하였다. 정영숙씨는 자녀들이 불평을 할 때 직접 노숙자들을 보여주었는데, 자녀들도 '우리보다 힘든 사람이 진짜로 있네' 라며 위안을 했다고 한다.

보일러 불 안 켜다고 애들이 하도 투덜거리어서, 지하도에 있는 노숙자들, 그들을 직접 보여줬어요. 저 아저씨들 한번 봐 보라고. 저렇게 하루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약주 깔아 놓고 그래 잠자지 않는냐고. 애들 텔레비 보고 뭐 노숙자 그래도 마 피부에 안 닿았나 보지. 맨날 그때 항상 IMF 되가지고 뭐 서울역에, 어디 역에, 남대문에 노숙자들이 그게 마 애들 또 모르잖아. '아이 설마' 이래서 인자 내가 직접 보여주니까, 애들이 "엄마, 텔레비가 진짜다. 저런 사람들 내 눈에 보니까 진짜야." 내가 진짜로, 저런 사람들, 자는 사람들 보여주다 왔어요. "보니까 진짜로 있네. 우리보다 힘든 사람이 있네." 그래서 "진짜 부유층 부러워하지 마라." (정영숙)

그러나 현 사회에는 분명 빈곤 여성가장보다 경

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빈곤 여성가장들은 '잘 사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들어 삶에 대처해 나가기도 한다. 제보자들 중에서 파출부로 일한 경험이 있는 제보자들은 부유한 생활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명자씨는 '있는 집에서 잘 살던 아이들도 얘기를 해 보니 문제가 있었다'고 하였고, 오미향씨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한 가지 근심은 다 있으니, 현재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하얗든 세상에 그 모든 풍파를 겪고 나니까, 또 파출부 일을 하면서 못 볼 것도 많이 봤고... 나 비록 이 쪼끄만 집에 살지만, 그 백 몇 십 평 되는 집에 일 다녀보고, 그 환경 속에 들어가서 그 사는 모습을 보니깐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그 다 한 가지 고통은 다 있다라는 거, 그 정말 한 가지 근심은 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나는 나 등 불일 곳만 있으면 산다' 그 맘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집도 궁궐이에요. (오미향)

종교는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줄 수 있다. 빈곤 여성가장의 경우에도 종교 활동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얻을 수 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제보자 중에도 종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여성가장이 많았다. 여성가장이 되기 이전부터 종교를 가지고 있던 제보자도 있었지만, 여성가장이 된 이후 더욱 열심히 종교활동을 하게 되었거나 새로 종교를 갖게 된 경우도 있었다. 정영숙씨와 같이 힘들어서 한강에 빠져 죽으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종교를 가져 본 경우도 있었고, 박명자씨처럼 사는 것이 겁이 나서 성당에 다니기 시작한 후 기도의 힘으로 버틴 경우도 있었다. 종교는 허혜순씨가 '지팡이 역할'을 했다고 하듯이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대상이 되고, 나영심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을 비우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한다. 또한 김보선씨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함'으로써 현재에 만족하고 살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주는 것이다. 다음은 종교가 있기에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만족하고 살 수 있다는 이경순씨의 이야기이다.

근데, 저 정말 열심히는 살았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정말, 그 방문을 나오면서, 발걸음을 내딛는 이 순간부터 내 정말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온전히, 내 생각까지도 정말 고개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그 내 한 마디 한 마디 하는 것까지도, 하느님께 다 봉헌해요. 봉헌하구, 정말 당신이 알아서, 실수하지 않게끔, 당신이 다 이렇게 해 주시라고, 그렇게 봉헌하고, 또 저녁이면, 정말 지나간 일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고, 앞으로 일 생각하면 삭막하니까, 그냥 오늘 하루 살아있는 거, 그냥 오늘 하루 이렇게 무사하게 지나간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요. 집에 가면서도 항상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정말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늘만 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다보면 내 옆에, 이런 큰 보호막이 되어있는 것 같고, 내 앞에 이런 흰히 하늘이 보이는 것 같고... (이경순).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자 하는 빈곤 여성가장의 대처 전략은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일까? 비록 많은 빈곤 여성가장들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만족하고 살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빈곤 여성가장의 마음 속에는 돈 걱정, 자녀 걱정, 그리고 남편에 대한 울분이 있으며, 이러한 감정은 바쁜 생활 속에 그저 묻혀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제보자들이 '현재에 만족한다'라고 말했지만, 이렇게 말하는 제보자들의 표정 속에서 고통과 인내의 시간들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제보자들에게 있어 가슴 속 응어리는 한혜숙씨와 최숙구씨의 경우처럼 '정신이 없다'라는 증상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만족을 넘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던 김보선씨도 '마음 속에 울분이 있지만 어디 가서 풀 시간이 없으니 혼자만 삭인다'고 하였고, 박명자씨 역시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고민 걱정은 뒤로 간다'라고 호소하였다. 아래에 소개한 '일부러 복잡한 일은 생각을 하지 않으니 편하게 산다. 그렇지만 정신이 없다'는 한혜숙씨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도 못 해 봤다'는 이경순씨의 이야기는 빈곤 여성가장의 심리 상태를 잘 대변하고 있다. 즉 빈곤 여성가장은

현재 상황을 인정하기 위해, 되도록 생각을 단순화하거나 목전에 닥친 생존에 초점을 두는 등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라리 이 상태가 편하다구, '이 상태가 너무 편하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사람들도 그래요, 나 보고, 참 너무 편하게 산다고... 근데 잊어버려요. 나는 지금 어디가 빠진 거 같은지... 그래서 요즘 우리 애들한테 그래요. "엄마는 치매 걸린 거 같애. 어제 일के 깜빡깜빡 잊어 버리냐." 냉장고 문을 딱 열고, 뭘 꺼내야 되는데, 그러다가 문 딱 닫고 나서, '어머 세상에 만원 짜리를 여기 넣었는데 왜 잊어버렸지?' 우리 집 전화번호도 그래요. 누가 물어보면은, 우리집 전화번호요? 또 한참 생각하면은 '아, 몇 번이에요' 그래져요. 이상하게...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 같애요. 앞에서 그러거나 그러면은, 막 짜증이 나오, 내 속에서... 막 복잡한 얘기하면은 이거 소화도 못 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웃고 해주고 따지고 그러고 넘어가는 거는 넘어가는데, 내가 실없는 소리도 많이 하거든요. 이따금, 내가 푼수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부러 그러는 것도 있어요. 또... 분위기에 따라서 모... 이렇게 심각한 얘기... 그러면 우선 내가 속이 더 좋을려고 그러니까는, 될 수 있으면 생각을 안 할려고 그러죠. (한혜숙)

경제적인 것이 힘들다보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힘들니까 체력적으로도 당연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체력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욕심이 없어져요. 욕심이 없어지고 하루 하루, 그냥 하루 하루만 견디나가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일, 뭐 그런 거, 내 훗날, 그런 건 바라볼 것도 없고... (이경순)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빈곤 여성가장과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그들에게 중요한 삶의 주제로 발견된 대처 전략을 기술하고 그 의미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면접과정을 보면 심층면접의 초기에는 빈곤 여성가장들이 가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빈곤 여성가장의 문제가 단

순히 '돈이 없다'라는 빈곤의 문제가 아닌, 보다 복합적인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빈곤 여성가장은 자신이나 남편이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받지 못하며 성장하였고,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력 등의 원인으로 결혼 초기부터 여성가장이나 마찬가지로 생활을 하였다. 빈곤 여성가장의 삶 속에는 단순한 빈곤 이외에 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문제가 있었고, 남편을 포함한 사회관계망의 구성원이 안겨준 상처가 정서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의 역사 및 사회적 특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빈곤 여성가장이 성장할 당시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남녀차별은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한시켰고, 오늘날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은 빈곤 여성가장의 취업의 폭을 좁히고 낮은 임금의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게 하였다. 또한 여성의 순종을 미덕으로 삼는 전통윤리와 모자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남편의 폭력이나 외도를 인내해야만 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자료를 분석하면서 빈곤 여성가장에게 있어 '어떻게 어려운가'에 못지않게 중요한 주제는 '어떤 전략을 사용하여 살아 나가는가'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빈곤 여성가장으로서의 삶에 대처하기 위해, 자녀와 함께 사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수용하고 남편이 안개 기둥일 뿐임을 인정하는 대처 전략을 채택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빈곤 여성가장은 국가 및 사회관계망의 도움을 기대하기 보다 스스로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전략인,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홀로 서는 전략을 삶의 자세이자 생활양식으로 선택하고 있었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는 과정에서 빈곤 여성가장은 강한 정신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변화하는 경험을 하였다. 여성가장으로 홀로 서기 위해서 빈곤 여성가장에 필요한 또 다른 전략은 마음을 비우고 현재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정의하는 것이었다. 빈곤 여성가장은 다른 사회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현재에 만족하고자 노력하였고 종교의 힘을 빌리기도 하였는데,

현재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정의하는 전략은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왔다.

독립적인 생활태도로 여성가장으로 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정의하려고 노력한다는 빈곤 여성가장의 대처 전략은 빈곤문화나 빈곤 여성가장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심리적인 무기력과 절망감으로 대표되는 빈곤 문화(한상진, 1991)를 빈곤 여성가장이 수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내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 빈곤 여성가장은, '복지제도에 의존하며 게으르다'는 빈곤층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도 괴리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모든 빈곤층이 동일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곤의 문제에 접근할 때, 빈곤층의 집단 내 차이를 고려하는 정교한 연구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빈곤 여성가장이 전형적인 빈곤문화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대처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빈곤여성가장의 문화가 낙관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가는 순간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출발했으니까 완행열차 타듯이 그냥 가요. 뭐라고 여기서 제가 소리를 칠 수도 없고,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냥 가고 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라는 박명자씨의 말은 빈곤 여성가장이 짊어진 삶의 무게를 잘 보여준다. 특히 20 대 80의 부의 분배구조가 더 고착화되어 가는 사회상황에서 이들의 대처 전략은 희망을 주기보다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절망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인가? 빈곤 여성가장이 긍정적인 대처 전략을 채택하여 여성가장으로서의 삶에 잘 대처해 나가고 있고 힘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다라는 것이다.

한편, 이 연구의 결과는 빈곤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와 민간의 지원 방향에 대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빈곤 여성가장이 사회관계망과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대처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직접 경제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보다 필요할 것이다. 즉 안정적인

직업을 위한 기술교육이나 직업 상담 및 직업 알선과 같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직업적인 측면의 지원과 함께, 빈곤 여성가장이 현재에 만족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기 어렵게 만드는 정서적인 문제와 가족관계 관련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도 요구된다. 이러한 서비스로는 무료 상담이나 대인관계 및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이 연구가 선행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빈곤 여성가장의 삶과 경험에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 부분 심층 면접과 질적 분석이라는 방법론을 채택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빈곤 여성가장 본인들의 목소리를 찾아내기 위하여 내부자적 시각을 중시함으로써 빈곤 여성가장에게 중요한 주제인 대처 전략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대처 전략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빈곤 여성가장이 복지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거나 빈곤 문화를 형성하고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님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도 이 연구의 의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족이라는 현실과 핵가족만을 규범적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 사이의 문화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문화지체가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앞으로의 방향은 현존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정상가족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여성가장 가족 역시 정상가족의 경계를 열고 인정해야 할 가족의 형태이다. 독립적인 생활태도로 현재에 만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빈곤 여성가장에게 격려를 보내고, 이들을 현대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족의 한 형태로서 포용하는 사고방식으로서의 전환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김영희(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자(1988). 저소득층 모자가족에 관한 연구. 여성 연구, 6(3), 5-43.
- 김주희(1992).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친족문제. 한국 가족학연구회. 도시 저소득층의 가족문제. 서울: 하우, 131-150.
- 노영주(2001). 이혼 여성의 모성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2), 43-63.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2002년 2월 20일 검색, <http://www.encyber.com>
- 박영란(1998).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보건복지부(1999). 생활보호대상자 현황분석.
- 신수아, 옥선화(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129-141.
- 야후! 국어사전. 2002년 2월 20일 검색, <http://kr.kordic.yahoo.com>
- 옥선화, 성미애, 허정원(2001).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 여성가장의 생활실태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9(2), 1-14.
- 이재림, 옥선화(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5), 49-64.
- 조용환(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조은, 조옥라(1992). 도시민민의 삶과 공간: 사당동 재개발지역 현장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가구·주택부분)(2001). 2002년 2월 24일 검색, <http://www.nso.go.kr/report/data/spce00-3.htm>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편부모가구의 생활실태와 복지대책.
- 한상진(1991). 빈곤문제. 고영복 편. 현대사회문제.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112-146.
- Pearlin, L. I.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21.
- Thoits, P. A.(1995). Stress, coping, and social processes: Where are we? What nex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extra issue)*, 53-79.

<부록> 제보자가 빈곤 여성가장이 된 과정

<제보자 1 : 김보선>

김보선씨는 아버지가 학교를 못 다니게 하자 공장에 다니면서 야간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몸이 자주 아파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했었으나, 아버지가 위암 선고를 받은 후 건축 관련 일을 하는 남편과 두 달간 교제를 하고 스물 여덟 살에 결혼을 했다. 결혼 삼일 췌부터 폭력을 행사하던 남편은 자녀들도 툭, 망치, 칼 등의 연장으로 때리는 바람에 김보선씨는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플 때가 많았고 자녀들도 정신이상 증세를 보일 정도였다. 남편은 명절이나 돈을 조금 가져올 뿐이어서 김보선씨가 부업으로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았지만, 좋은 날이 있을테니 참고 살라는 친정 어머니의 말에 참고 살았다. 그러다가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기자 1998년에 자녀들을 맡는 조건으로 위자료 받지 않고 이혼을 했다. 이혼을 하니 안 맞고 사는 것이 편하고 아이들 성격이 밝아진 것이 다행이지만, 자녀교육과 주거

문제가 걱정거리이다. 식당 주방일, 화장품 외판원 등을 하며 2남1녀를 키우고 있으며 당뇨와 합병증으로 몸이 좋지 않다.

<제보자 2 : 박경숙>

박경숙씨는 구타가 심한 아버지를 피해 어머니와 함께 야반도주하여 서울로 왔다. 서울에서 야간 중·고등학교를 다녔으나,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을 하고 공장을 전전하는 생활을 하느라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가진 것이 전혀 없던 남편을 만나 큰 딸을 낳은 후 결혼을 했고,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회사가 큰 빚을 지면서 공범으로 몰려 투옥되었다. 남편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정이 떨어지고 미워서 집에 못 들어오게 하면서 별거가 시작되었고 여성가장이 되었다. 병원비 때문에 버려버릴까 생각도 했던 뇌성마비 환자인 큰 딸은 상태가 많이 좋아졌지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 박경숙씨는 보험설계사, 공공근로 등을 하다가 지금은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몸에 배어 버린 음식냄새 때문에 식당일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중졸이라는 학력 때문에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보자 3 : 한혜숙〉

한혜숙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정의 사업부도로 서울로 도망을 왔다. 오빠의 소개로 여섯 살 차이가 나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 건축업에 종사하던 남편은 수입이 괜찮은 편이었지만 집에 돈을 잘 가져오지는 않았다. 남편의 사업부도로 남편은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출소를 하자 한혜숙씨는 남편에게 정이 떨어져서 목소리도 듣기 싫고 쳐다보는 눈길도 싫어졌다. 결국 남편은 집을 나갔고, 그 때부터 한혜숙씨는 낮에는 책 외판을 하고 밤에는 집에서 부업을 하며 생계를 꾸려 나갔다. 현재는 파출부로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 없는 지금이 훨씬 편하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거지집에 사는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을 당하고 돈이 없어서 피씨방에도 가지 못하니 답답하고, 디스크로 파출부 일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제보자 4 : 정영숙〉

정영숙씨는 친지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하루살이 같은 사람으로, 가정에 대한 책임이 없고 게을러서 가끔 노동일을 했을 뿐 정영숙씨가 살림을 꾸려 나갔다. 더욱이 남편의 의치증, 심한 폭력과 욕설, 그리고 얽혀 살던 시가에서의 구박도 견디기 힘들어지자 남편 몰래 아이들과 서울로 도망을 왔다. 보일러는 커녕 이불도 덮지 못하고 곰팡이가 심하게 핀 집에서 살았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가정방문을 하고는 놀라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남편 친구가 보증금을 빌려주어서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너무 좋아서 온 가족이 이틀동안 잠을 자지 못할 정도였다. 1남2녀를 두었는데 작은 딸은 생활이 힘들어서 외가에 맡겨 두었다가 중학교 배정 문제로 2000년에 서울로 데리고 왔다.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때려 죽인다고 하니 겁도 나고,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인 큰 딸이 부모 중 한 명이 없으면 입사면접에서 불리하니 참아 달라고 하여서 하지 않고 있다. 둘째 딸은 이혼하라고 하지만, 아들 역시 아버지 없는 자식은 되기 싫으니 절대 이혼은 하지 말

라고 성화이다. 현재 니트공장에서 미싱사 보조로 일하고 있고 집에서 머리띠 붙이는 부업을 하고 있지만 하루 세 끼 먹기도 힘든 상황이다.

〈제보자 5 : 허혜순〉

허혜순씨는 형편이 어려운 부모가 남동생을 가르쳐야 한다는 이유로 고등학교를 보내주지 않고 간호원 양성소에 보내려고 하자, 가출을 해서 친구와 함께 서울로 왔다. 서울에서는 동대문 시장에서 미싱일을 배웠고, 트럭을 몰고 다니며 장사를 하던 남편과 교제 두 달만에 결혼을 했다. 남편은 자기 하나만 편하면 되는 사람이고 굶어도 일을 안 할 사람이었기에, 어차피 혼자 벌어먹고 살아가야 될 것 같으면 남편이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이혼을 했다. 늘 먹는 것이 걱정이었는데, IMF 때는 계속 일이 없자 '애들을 내가 맡아 갖고 굶겨 죽이나보다'고 생각하니 아찔하기만 했다. 허리가 많이 아프고 아이들도 태어나서 줄곧 지하에서만 살아서 그런지 자주 아픈데, 성당에 열심히 다니니 건강해지는 것 같다. 지금은 양심적인 사장을 만나서 일당제이나마 꾸준히 돈을 벌고 있지만, 회사는 나이 제한이 있으니 앞으로는 파출부밖에 할 일이 없을 것 같다.

〈제보자 6 : 최숙구〉

최숙구씨는 졸업장 받을 돈이 없어 초등학교 졸업장을 못 받을 정도로 친정이 가난했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식모살이하러 서울에 올라와서는 번 돈을 친정에 부쳤고, 염색공장에서 만난 남편과 임신을 한 후에 결혼을 했다. 결혼을 하자 남편은 일을 하지 못 하게 했고 곧 다른 여자가 생기더니 때리기 시작했다. 남편은 여자를 바꾸어가며 바람을 피웠고, 집에 잘 안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결혼 10년 후 가출을 했다. 그 때부터 최숙구씨는 쉿공장, 가방공장, 보험회사, 식당, 나이트클럽 등에서 일을 했고 지금은 여성복 공장에서 미싱사 보조를 하고 있다. 남편이 가출한 지 6년 후 소송을 해서 이혼을 했고, 위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애들 대학이라도 보내려는 마음으로 양육비 소송 중이다.

〈제보자 7 : 박명자〉

재산이 조금 있는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난 박명자씨는 여자는 집에서 내조를 하고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대학도 졸업했다. 남편의 직업과 가정형편 때문에 친정에서 결혼을 반대했지만, 안정

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보아 왔기에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결혼을 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데다가 체력도 약한 남편은 한 직장에 오래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노는 일이 잦았고, 부부가 함께 분식집을 해 보기도 했으나 남편은 박명자씨가 집에만 있기를 바랐다. 남편은 몇 번 사업을 벌였다가 실패했고, 의류업을 하다 부도가 나자 일을 해결하고 온다며 외국으로 간 지 10년이 넘었다.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만 다니다가 식당일, 아기 보기 등을 하며 살았는데, 스트레스 때문인지 갑자기 한 쪽 눈을 실명했다. 여자가 혼자 살아가려면 학력에 관계없이 전문기술이 있거나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기술도 자격증도 없으니 언제 그만둘 지 모르는 보조일 밖에는 할 수가 없다. 실명과 빈혈 등 건강 문제 때문에 일하는 것이 무척 힘에 부치지만, 아이들에게 그저 하나의 겨자씨가 된다는 생각으로 산다.

〈제보자 8 : 이경순〉

이경순씨는 가정형편으로 중학교만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남편은 결혼을 해 주지 않으면 죽는다고 해서 마음에는 들지 않았지만 '내가 잘 하면 잘 될 것이다'라고 믿고 결혼을 했다. 남편은 거의 매일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면 폭력과 욕설을 일삼았다. 술 때문에 직장도 한 달을 못 다녔고, 사업을 하더라도 유지가 되지 않았다. 너무 힘들면 가출을 하기도 했지만, 친정 어머니가 천주교 신자는 이혼을 하면 안 된다고 하여서 이혼을 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된다. 남편은 술 때문에 결국 간경화에 걸렸고, 1995년부터 수시로 입원을 하고 있는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아이를 셋 낳았는데 심장병이 있던 셋째는 해외입양을 시키고 말았고, 이경순씨 역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서인지 협심증이 있어서 약으로 살고 있다. 파출부, 건어물장사, 간병인 등을 하다가 현재는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는데, 혼자 화장실도 못 가는 남편을 간호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도 만만치 않다. 버는 돈은 모두 병원비로 쓰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체력이 달려서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지만, 요즘은 누가 말려도 대학을 간다는 딸의 등록금 걱정이 가장 크다.

〈제보자 9 : 오미향〉

오미향씨는 작은 바닷가 마을의 기독교 집안에서 8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스물다섯에 초혼을 하고 7년을 살았으나, 남편의 무정자증과

외도로 이혼을 했다. 서른 둘에 소개로 만난 남편은 딸린 자식이 없고 소박한 것 같아서 한 달만에 결혼을 했다. 그러나 결혼을 하자마자 술만 마시면 구타를 했다. 남편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 언어적 폭력을 가했고, 자녀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어서 갓난아기일 때부터 아이들을 감추어 놓고 키웠다. 그러나 두 번 이혼을 해서 부모형제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참고 살았다. 남편은 노동일을 했는데,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나면 일을 못 나가니 신용이 바닥 났고 결국 일을 놓았다. 그 때부터 오미향씨는 파출부로 일하게 되었고 하루에 세 타임을 뛰기도 할만큼 쉬지 않고 일했다. 그러나 남편은 과음으로 인한 식도파열 등으로 자주 병원에 실려갔고, 병원에서도 몰래 술을 마시거나 도망을 나오기 일쑤였다. 참다못해 정신병원에 몇 번을 이송시키기도 했다. 다행히 가정폭력방지법이 생긴 다음부터 남편의 폭력은 주춤해졌다. 그리고 정신병원에서 도망 나와 집에 들어오지 못하던 남편에게 들어와 살라며 승통을 퇴위주자, 그 다음부터 금주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다. 남편은 2년째 금주를 하고 있는데, 항상 아프다고 하니 돈 벌어오는 것은 포기했다.

〈제보자 10 : 나영심〉

나영심씨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위해 상경했다. 의류공장에서 일하면서 버는 돈은 동생들 학비로 쓰라고 집으로 부쳤고, 남편은 선을 봐서 만났다. 남편은 선반/용접일을 했는데, 병든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서 저축은 못 했지만 빚은 없었다. 그러나 지난 1996년, 남편이 건축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양쪽 발 뒤꿈치 뼈를 심하게 다친 이후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나영심씨는 10년 동안 쉬었던 봉제일을 다시 시작했다. 사고 이후 나약해진 남편은 계속 과음을 하여 속을 썩이고 있고, 나라 경제가 안 좋으니 새로운 일을 찾지 못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놀며 지내고 있다. 돈을 못 벌고 부인에게 용돈을 타 쓰니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 시부모가 오래 전부터 살던 옛날 시골집같은 흙집에 살고 있는데 화장실은 재래식이고 연탄을 땀다. 시유지에 지은 집이라 재산 가치가 전혀 없고 매매도 되지 않지만, 집을 소유하고 있으니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집수리는 커녕 텔레비전도 고장난 이후로 새로 사지 못해서 없이 사는 형편이지만, 나이가 들어 손이 느려지니 공장에서 돈을 적게 받아도 할 말이 없다. 공부를 잘 하던 아들은 사고 이후로 성적이 많이 떨어졌는데, 고집을

부려 재수를 하고 있으니 등록금 마련이 가장 걱정이다.

〈제보자 11 : 강선숙〉

강선숙씨는 아는 언니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1년을 연애하고 결혼했다. 남편은 보석 도매업을 했는데 사기를 자주 당하고 씹씹이가 컸다. 결국 남편의 사업은 부도가 났고 빚쟁이와 경찰을 피해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 시누이 집에 얹혀 살면서 미싱사 보조를 했으나, 구립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작은 아이가 자주 아파서 그만두게 되었다. 그 이후 시간제인 간병인과 식당 홀서빙을 했고, 남편은 도망 다니기에 바빠다. 남편과 호도과자 노점을 잠깐 했는데 기계를 도둑맞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와중에 남편은 잡혀가고 말았다. 시누이집에서 계속 살자니 눈치가 보이고 팔시를 당하는 것도 피로워서 빚을 내 반치하 월세방으로 나왔고,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사무 보조일을 하고 있다. 출소한 남편은 노동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며 다시 보석 도매업으로 재기를 하겠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돈을 빌릴 궁리만 하니 죽이고 싶을 만큼 밉다.

〈제보자 12 : 정영선〉

산골마을에서 초등학교만 졸업한 정영선씨는 어차피 스스로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팔자라고 생각하고 께지로 나왔다. 가방공장을 다니다가 만난 남편과 동거를 하다가 아들을 낳고 결혼을 했는데, 친정부모가 남편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결혼 이후 남편은 건설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한 현장을 오래 다니지 않고 자주 옮기는 바람에 생활비를 주지 않는 일이 잦았다. 형의 구타 등 성장과정에서 맺힌 한이 많은 남편은 술을 많이 마셨고, 술만 마시면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 아이들이 크면 남편도 정신을 차릴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10년을 살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가출을 했다. 도망 나오던 날도 남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영화의 탈출 장면이 따로 없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살 수 있는 날만을 기다리며 가정부, 식당일 등을 했다. 가출한 지 4년 반이 흐른 1994년,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간경화에 걸렸으나 입원할 형편도 되지 못하자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한 것이다. 소식을 듣고 아이들을 서울로 데리고 왔는데, 걸핏하면 이사를 다니고 밥 굶기를 밥 먹듯이 했고 아이들도 마음을 엄마에게 담아서 적응하고 살기가 어려웠다. 주부습진이 너무 심해서

권리금 200만원을 대출 받아 우유배달을 시작하게 되었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힘들게 살고 있다.

〈보조제보자 : 신희경, 고애석, 이수경〉

면접과정에서 빈곤여성가장의 전형적인 사례⁷⁾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3명은 보조제보자로 하였다. 신희경씨는 함께 정육점을 하던 남편이 1995년 감전사고로 사망한 이후에도 정육점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지병인 간질과 정육점의 수입 악화로 면접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에 가게를 처분하고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신희경씨는 집에서 기계조립 부업을 하고 있으나,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가족을 부양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조제보자로 하였다.

직장을 그만 둔 남편이 전혀 일을 하지 않자 여성가장이 된 고애석씨는 본인과 자녀에 대한 남편의 구타, 자신을 중군위안부라고 생각했을 정도의 성폭력에 여자문제까지 겹치면서 이혼소송을 했다. 오랜 기간의 이혼소송 끝에 2001년에 이혼을 했고, 현재 자녀와 유료 쉼터에 거주하면서 식당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애석씨는 여성가장으로 생활한 기간이 짧고 자녀가 이미 대학에 진학한 상태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사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조제보자가 되었다.

1991년 남편이 가출한 이후 이혼수속을 밟고 여성가장이 된 이수경씨는 자녀위탁 문제로 시간제 식당일을 하다가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된 후부터 사무 보조를 하고 있다. 현재 딸과 함께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는 있으나 딸이 성장하기 전까지는 재혼할 생각이 없다. 이수경씨는 본인의 소득으로 가족을 부양한다는 점과 재산상태의 측면에서는 빈곤 여성가장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친정에서 비정기적으로나마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서 일차적인 생계유지에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조제보자로 하였다.

7) 빈곤 여성가장에 대한 선행연구(옥선화 외 2인, 2001)를 참고하여, 남편의 소득 없이 본인의 근로소득이 가족의 주소득원인 여성으로서, 직업은 단순적이고 일차적인 의식주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전형적인 사례로 보았다. 또한 여성가장으로 생활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며,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이어서 부양을 요구하는 여성이 전형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